

보 도 설 명 자 료

('21. 11. 10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국내 화력발전소 중 탈질설비에 요소수를 사용하는 발전소는
약 10%로 요소수 부족이 곧 전력대란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
(조선일보, 매일경제, 중앙일보 11.10일 보도에 대한 설명)

- ◇ 국내 화력발전소 중 탈질설비에 요소수를 사용하는 발전소는
약 10%로 요소수 부족이 곧 전력대란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
- ◇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발전설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
- ◇ 11.10일 조선 <요소수 재고 한달치뿐, 화력발전소 15% 멈춰설 위기>,
매경, 중앙 등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.

1. 보도내용

- 발전공기업 화력발전소 요소수 재고가 한달치 정도밖에 남지 않아,
전력수요가 급증하는 겨울철 15%가 멈춰설 위기로 전력대란 비상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국내 화력발전소(73GW) 중 탈질설비에 요소수를 사용하는 발전소는
약 10%(7.4GW)로 요소수 부족이 곧 전력대란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님
 - * 화력발전소에서는 질소산화물 제거를 위해, 無水암모니아, 암모니아수, 요소수를 사용 중
- 요소수 사용량은 발전량, 전량수급 여건 등에 따라 상이하며,
非요소수 발전소 우선가동 및 상한제약 완화 등으로 총 재고량 조정가능
- 산업부는 요소수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, 전력수급에 차질이
없도록 발전설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계획

※ 문의: 강감찬 전력산업정책과장(044-203-3880) / 조민웅 사무관(3887)